

담배에 대해서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도 담배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하는것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때 운전수가 담배를 자주 씹니다만, 승객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폐쇄된 장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에게도 담배필 권리는 있습니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것은 정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흡연도 점점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을 정하면 무절제한 흡연습관을 어느정도 지켜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은 담배에 대해 법적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필 권리의 자유는 주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의 나쁜 영향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흡연할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흡연하는것을 싫다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선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적절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